

<서 면 답 변 서>

○ 이도형 위원(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도시위원회 제3호 2000. 11. 28)

<질 의>

- ◇ 경원선 광역전철사업비로 확보된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였기 때문에 경원선 공사가 중지된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면서
- ◇ 의정부, 동두천, 양주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인 경원선의 원활한 공사추진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.

<답 변>

- ◇ 경원선은 사업비 4,619억원을 투입하여 의정부 북부역에서 동두천시 동안역간 22km를 2004년까지 완공하도록 계획된 광역전철사업입니다.
- ◇ 사업비는 국가가 3,454억원, 우리 도가 지방비 1,165억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으며
- ◇ '99년말 기준으로 국비가 371억원, 도비가 157억원 총 528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.
- ◇ 2000년도에는 우리 도가 124억원을 부담하여야 하나 수해복구사업 등 어려운 재정 형편 때문에 66억원을 집행한 상태입니다.
- ◇ 현재 광역철도사업의 집행방식이 국비와 지방비의 연도별 매칭펀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지방비가 미확보될 경우 국비 75%도 집행하지 않아 경원선 고사가 일시 중단된 상태이며, 예산이 다른 사업으로 전용된 때문은 아님을 보고드립니다.
- ◇ 아울러 이러한 지방비 분담방식은 지방자치단체의 탄력적인 예산운용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일부 지방비가 부족하게 확보될 경우 확보된 국고 재원도 투입하지 않아 사업추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이의 개정을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있으며
- ◇ 국고를 선투입하여 공사한 후 지방비를 부담하는 사업별 매칭방식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함과 동시에 다각적인 지방비 확보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.

<질 의>

- ◇ 광역직행버스는 배차시간도 없고 남에 노선을 침해하는 등 불법행위 자행으로 운송질서를 문란케 함은 물론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고 있으니 확대시행은 재고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.

<답 변>

- ◇ 광역직행버스는 서울을 생활권으로 하는 신도시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에 운행하고 있는 직행좌석버스 노선을 기·종점의 정류장수를 제한(10개 이내)하고 고급화하여
- ◇ 신도시와 서울도심을 시·도간 공동배차하여 Non-Stop으로 신속하게 운행하는 형태로서 기존의 노선이나 다른 노선을 침해없이 운행토록 하는 새로운 형태의 버스 제도입니다.
- ◇ 현재 광역직행버스의 운행현황으로는 3개노선의 56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.
 - 분당~광화문 16대(경기 8, 서울 8)
 - 일산~광화문 26대(경기 13, 서울 13)
 - 분당~삼성역 14대(경기 7, 서울 7)
- ◇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산본~광화문간의 노선을 신설하기 위하여 추진중에 있으나 서울시는 도심권 혼잡을 사유로 반대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.
- ◇ 그러나 우리 도 입장에서는 신도시와 대단위 주택단지가 산재하고 있어 이들 도민을 위한 광역직행버스가 필요한 만큼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오니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.

<질 의>

- ◇ 광명시는 서울시 금천·구로구와 택시사업구역을 통합시범운영하고 있는데 택시사업구역 통합이 기타지역으로 무리하게 확대될 시 지역간 갈등이 심화될 것을 우려하시면서 시범기간을 보다 연장할 것에 대해 물으셨습니다.

<답 변>

◇ 서울시와 인접한 시·군 지역주민의 상당수가 서울시를 생활근거지로 하여 택시를 이용하고 있으나 사업구역이 서로 달라 할증요금, 부당요금징수, 승차거부 등의 교통불편을 겪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어

◇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광명시와 서울 금천~구로간을 시범지역으로 하여 '99. 7. 1부터 2000. 12. 31까지 한시적으로 사업구역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

◇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택시사업구역통합은 긍정적 요인 뿐만 아니라 지역간 갈등요인 등 부정적 요인도 아울러 고려하여 신중하게 처리될 필요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.

◇ 그래서 광명시의 경우도 금년 9. 22부터 열흘간 그동안의 시범운영 실태조사를 해당 시민과 광명택시운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으며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.

※ 시범운영실태조사

- 광명시민 의견 : 사업구역을 서울시 전지역으로 확대(78.5%)
- 광명시 택시운전자 : 서울택시와의 분쟁해소(60.3%)
- 서울시민 의견 : 사업구역통합에 동의(64.2%)

◇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범기간의 연장 및 통합연기는 서울시와 협의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현재 교통개발연구원에서 검토중인 시범운영 성과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생각이며

◇ 아울러 하남 등 기타 다른 지역의 택시사업구역 통합은 해당 시·군의 여건이 광명시와 각각 다른 점을 감안하여 대상 시·군을 통해 지역주민과 택시운전자 그리고 택시사업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.

<질 의>

◇ 경기도에서는 복지택시제도 시행을 계획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택시구입비 등 예산확보와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.

<답 변>

- ◇ 우리 도에서는 장애인, 일시적 중급환자, 노약자, 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휠체어용 리프트가 장착된 복지택시제도를 명년부터 수원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운영결과에 따라 수요에 적합하게 단계적으로 도내 전 시·군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.
- ◇ 그동안의 추진상황으로는 본 제도의 시행에 따른 관련 시, 조합, 사업체 등과 계획안을 사전 협의하였으며, 교통정책심의위원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여 12월중에 개최 예정인 교통정책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안으로 확정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.
- ◇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복지택시제도 시행에 따른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복지택지구입비로 3천만원을 2001년 본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아울러 시범운영지역인 수원시에서도 일정한 분담비용을 예산에 반영토록 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.
- ◇ 위원님께서도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

○ 김영길 위원(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도시위원회 제3호 2000. 11. 28)

<질 의>

- ◇ 경기북부지역에는 최근 3년 연속 수해발생으로 하천정비사업비가 집중투자되는 반면 경기남부지역에는 투자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하시면서
- ◇ 금년도 7~8월에는 경기남부지역에도 수해가 발생함에 따라 하천정비사업비 투자와 필요성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

<답 변>

- ◇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최근 3년동안 경기북부지역 수해발생으로 개량복구사업 시행 등 치수대책사업을 시급히 시행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경기남부지역에 하천정비사업비 투자실적이 저조한 실정이었습니다.
- ◇ 앞으로는 기상이변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발생에 대비하여 하천정비 중장기기본

계획을 수정·보완하여 경기남부지역에 사업비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